| 불자 세상보기 |

'골치·눈치' 아닌 이해의 명절을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최근 3년간 명절 가정폭력 증가세
노부모·부부·형제자매 등 대상 다양
'시월드·처월드' 명절 스트레스 많아

부모대로 자식대로 소통 없이 口業
명절이 갈등 유발… 원인 찾아봐야

50~60대 '낀 세대' 작은 용기 필요
내 믿음 강요보다는 서로간 이해를

최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명절 연휴 가정폭력 112 신고현황'에 따르면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나는 가족 간 폭행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7,737건이던 신고건수가 2015년 8,491건, 2016년에는 무려 1만622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폭행의 유형도 부부폭력, 노부모 대상 폭력, 형제자매 및 기타 친인척 대상 폭력, 자녀 대상 화풀이 폭력 등 다양하기 그지없다.

이쯤 되면 명절은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다지는 아름다운 풍속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불화와 더 나아가 가족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갈등유발자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설과 추석으로 대변되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애써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이제는 명절나기의 현대적 함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되돌아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동안 이야기되던 명절증후군은 며느리가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총칭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시월드'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른바 '처월드'로 힘들어하는 사위들의 명절증후군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한다.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의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되어야 할 가족관계가 '시월드'와 '처월드'로 인해 흔들린다면 그 집안의 평온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먼저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간 배려하고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누구나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자식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상대방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말을 섞다보면 또 다른 갈등만 낳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절증후군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번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예컨대, 명절연휴 때 몇 시간씩 힘들게 고향 가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미리 성묘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망설여지던 일이 요즘은 오히려 익숙한 명절 풍경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명절나기가 오히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은 더 이상 대가족제도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삼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드는 21세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이 삶의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당연한 도리로 여겼던 것이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명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 사이의 갈등들은 곧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낀 세대'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의 5~60대는 베이비붐 세대로서 명절과 제사로 상징되는 전통을 지켜왔지만 앞으로 자식들로부터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낀 세대'로 불린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옳은 일로 알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지금 바로 여기서 서로 다독거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나기와 부모사랑의 참뜻이 아니겠는가. 이제 더 이상 가자니 '골치', 안 가자니 '눈치'가 되는 명절은 만들지 말자. 그래야 가족의 의미도 더욱 소중하게 와 닿을 것이다.

社說

부석사 관음상 환수는 '必然'

오락가락.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두고 생각난 단어다. 국어사전을 보면 '오락가락'의 의미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바로 항소와 가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은 예상 범위였지만, 대전지방법원이 5일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예상 밖이었다. 더군다나 같은 법원에서 다른 법률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정부는 서산 부석사의 보존능력을 이유로 가집행을 거부했지만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최선을 다해 보존할 능력이 있다"고 가집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다른 심판부는 "판결이 확정 전 불상을 인도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오락가락한 법원의 결정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런 것은 부석사 측이다. 주지 원우 스님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분명 일본서 반입된 부석사 관음좌상은 한국의 절도단이 저지른 범죄다. 하지만, 점거돼 죗값을 치루고 있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가. 부석사가 자리한 서산은 왜구 출몰 지역이었고, 왜구의 노략질로 약탈됐음이 분명한데도 사과조차 없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부석사 관음상 환수는 필연(必然)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불교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청년 세대 마음잡는 불교 되자

불교 각계가 2030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나서고 있다. 증심사의 고시촌 엄마밥상이나 조계사 청년회의 인연맺기 프로그램, 보림선원의 취업 준비 코칭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무료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교계가 청년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귀 기울이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단순히 포교를 떠나 우리 미래를 짊어 져야 할 중추세대가 대한민국의 오늘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청년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자 청년층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불자인구 감소 300만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지만 불자들은 아직 더 큰 시련이 올지 모른다는 걱정부터 하고 있다.

이런 청년층의 불교 외면은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 속에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진부한 해법만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여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이자 친구의 심정이 돼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라고 한다. 절망의 생채기가 끊임없이 새겨져 이제는 굳은 살이 돼 가고 있다.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나눔과 배려를 통해 자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비로소 희망이라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밥을, 조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식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다가갔다. 새해를 맞아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불교계에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犬主와 반려인, 그리고 연기법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누님이 개를 한 마리 키운다. 내게 '개'는 시골 마당에서 묶어 키우던 기억만이 있던 터라 실내에서 그것도 한 이불 덮고 함께 뒹굴며, 대소변 뒤치다꺼리까지 해주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에 강의가 있을 때 누님 집에서 묵으며 개와 생활해보니 녀석이 하는 짓은 영락없는 사람이다. 생김새는 개가 틀림없지만 함께 사는 사람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르고,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읽는다.

조카들은 용돈 줄 때만 나를 반기는데 녀석은 내가 아무리 밤늦은 시간에 가도 홀로 일어나 팔딱팔딱 거리며 반가워 까무러친다.(그러면서도 용돈은 요구하지 않는 센스!) 그렇게 녀석과 정이 들어가면서 왜 요즘 '애완견'이라는 표현 대신 '반려견(犬)' '반려묘(猫)'라는 말을 쓰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내가 느꼈듯이 그들은 단순한 귀여움의 대상인 '살아있는 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반려)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한데 어느 날 녀석과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견주님들은 반려견들의 목끈을 꼭 착용하시기를…'이라는 문구를 보았다.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자'라는 말을 쓸 때 '한 개'가 아닌 '한 쌍'을 염두에 둔다. 즉 '반려'라는 말은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말이 아니라 주고받는 상대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하려는 차원에서 '반려견(묘)'이라 부르려면, 함께 사는 사람은 '견(묘)주'가 아니라 '반려인(人)' 정도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한쪽은 '주인'인데 어떻게 다른 한쪽이 '반려견(묘)'일 수 있을까? 반려라는 말은 소유자-소유물, 주인-종의 관계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려란 어떤 무언가(A)와 또 다른 무언가(B)가 서로 상대자가 되어 존재할 때 서로에게 유의미할 수 있는 말일테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자로 존재하는 영락없는 '반려자'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길다'는 개념은 '짧다'는 개념을 상대로 존재한다. '짧다'는 개념 역시 '길다'는 개념이 있기에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밝음과 어둠도, 슬픔과 기쁨도 서로에게 반려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반려 관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둘 다 사라져 버린다. 긴 놈이 사라지면 긴 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려하는 짧은 놈도 동시에 그 의미를 상실한다. 밝음도 어둠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애당초 '밝음'만 존재하였다면 우린 그것을 '밝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 역시 슬픔이라는 반려자가 있었기에 '기쁨'이라 불릴 뿐이다. 그렇다면 천국도, 지옥도, 기쁨도, 슬픔도, 상대하는 개념에 의존해서 잠시 잠깐 성립하고 있는 순간적 존재들일 뿐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고타마 붓다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pratītya, 緣) 발생(samutpāda, 起)한 개념일 뿐 기쁨이다, 슬픔이다, 밝음이다, 어둠이다라는 것이 각각 불변하는 성질을 갖고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이름 하여 연기법(緣起法)의 천명이었다. 그래서 훗날 대승 불교도는 이러한 고타마 붓다의 연기법을 이어 받아 "일체 모든 것은 홀로 성립되는 불변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기대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공(空)한 것일 뿐!"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렇게 연기법은 공이 되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